

# 오늘부터 동네 병·의원서도 확진 판정

### 오늘부터 한 달간...정점 고비 넘기 확진 즉시 치료...먹는치료제도 처방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동네 병·의원서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판정이 나오면 확진자로 분류돼 즉시 격리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오미크론 대유행도 정점기간에 진입함에 따라 1~2주간 넘겨날 수 있는 검사수가 일부 분산되고 치료시기도 일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13일까지는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제외한 저위험군은 RAT 후 양성일 때 다시 PCR 검사에서 양성이나와 확진으로 인정된다. RAT의 정확도가 낮은 탓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위양성(가짜양성) 결과를 받을 경우 불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14일부터는 RAT가 가능한 병원에서 진단 후 15~20분 내 양성 나오면 바로 확진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진료비 약 5000원을 내면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 무증상자는 진료비 5000원 외에 검사비가 따로 발생한다.

전문가용 RAT가 가능한 주변의 병·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전국에는 7588개의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전문가용 RAT에서 양성 결과가 나오면 추가 검사 없이 즉시 먹는 치료제(경구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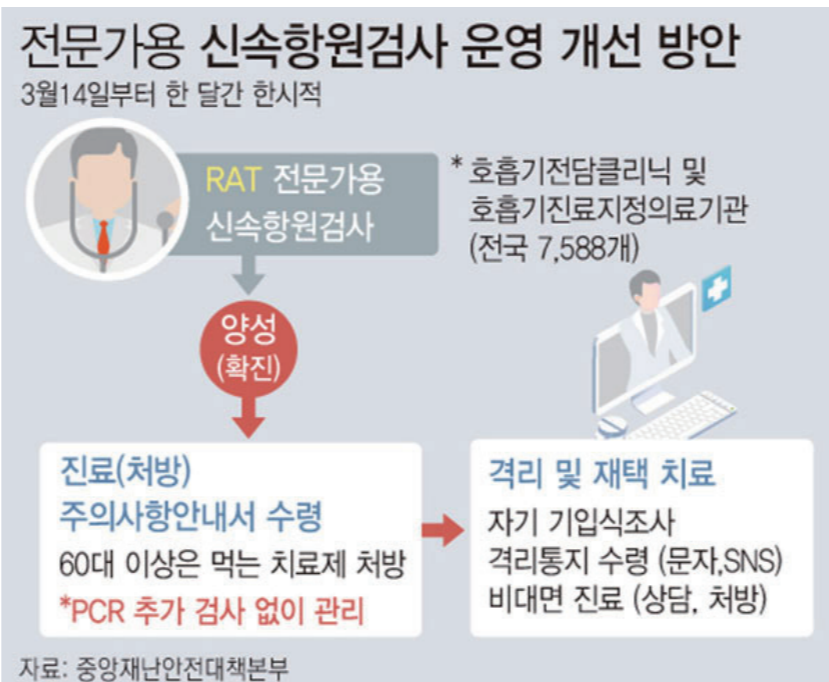
제) 파스로비드를 처방받고 병상 배정 또는 재택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병·의원에서 RAT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약국에 들러 약을 처방받는 것만 가능하며, 도보나 자차 등으로 즉시 귀가해야 한다. 전문가용 RAT 검사로 확진됐더라도 동거인 등은 PCR 검사가 권고된다.

기존 파스로비드 처방 대상인 40~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은 PCR 검사에서 양성을 받아야 처방이 가능하다. 11세 이하 어린이는 소아·청소년 전문의의 검사·진료를 받고, 대면 진료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 소아 거점 전담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정점 기간 이 같은 진단체계를 통해 선별진료소·선별검사소 등에 쏠린 검사 수요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점이 지난 뒤 한 달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병원 1곳당 하루 50~100건의 RAT를 실시하면 하루에 최대 77만 건까지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1~2주간이 유행 정점기간으로, 이미 최대치로 제시된 37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검사량도 하루 최대 PCR 검사 역량인 85만건을 크게 상회할 수 있는 만큼 동



네 병·의원으로 수요가 분산되는 셈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진단체계를 바꾸는 것을 넘어 전체 확진자를 대상으로 '치료 속도전'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먹는 치료제 파스로비드가 12만명분이 남아있는데도 처방 절차가 복잡하거나 일선 의료기관에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파스로비드는 증상이 나타난지 5일 이내에 복용을 시작해야 80% 이상 호전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병용급기약품이 국내에 13종이 있어, 일일이 처방내역을 살펴야 하는 점이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금진 진단보다는 치료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일 중요하다"며 "병원이 치료제를 신청해도 정부가 약을 풀지 않고 절차도 복잡해서 2주 전부터 약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용 RAT 확진 인정의 경우)PCR 검사는 (결과가 나오면)1~2일이 지나는 동안 증상이 악화돼 먹는 치료제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빠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40~50대 기저질환자는 (전문가용 RAT 양성이어도)먹는 치료제를 처방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아픈 20대 환자, 2세 영아가 고열이 있을 때에도 바로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절독감(인플루엔자)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환기자



### 여수경찰, '시민과 함께하는 국가·수사·자치경찰'추진 간담회

여수경찰서(서장 정성록)는, 11일 여수경찰서 주요부서 과·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장 안전한 여수를 만들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여수=오상호기자



### 순천경찰, 치안성과 "또 에스(S)"추진보고회 개최

순천경찰서(서장 최병윤)는 지난 11일 안전한 전남, 안전한 순천을 만들기 위한 치안성과"또 에스(S)"추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순천=김승호기자



### 광양경찰, 관내 마을방범CCTV 일제 점검 실시

광양경찰서(서장 장진영)는 오는 3월31일까지 농촌지역 어르신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마을 자위 방범용 CCTV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양=심종섭기자



### 나주경찰, 산업단지 교통안전 활동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나주경찰서는 나주시 일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원활한 물류 이동을 도모하고 국민편의 증대를 위해 지역주민, 지자체, 교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산업단지 신속대응팀을 구성했다.

기동취재본부



### 광주 남부소방, 의용소방대원 산불 화재 예방에 총력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봄철 건조한 기후로 산불 화재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이 산불 화재 예방에 나섰다 밝혔다.

최이슬기자



### 광주 동부소방, 중대시기 안전하기 좋은날'D-day' 추진

광주 동부소방서는 10일 오후 관내 전통시장인 산수시장에서 안전하기 좋은날(D-day) 및 점포점검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영업시간 조정 후 첫 금요일 밤, 경찰 전국 일제 음주단속. 식당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 조정된 이후 첫 금요일을 맞은 11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유흥가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 '코로나 사망' 1만명...유행 정점 속 사망자 급증도 우려

국내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1만명 가운데 올해에만 절반에 가까운 4519명이 숨지면서 기존 델타 변이보다 병독성이 약하다고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난 2년간 전 세계적으로 낮은 초과사망률을 기록한 우리나라는 이번 오미크론 확산세로 초과사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진료 확대와 먹는 치료제 처방으로 초과사망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1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인 1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만144명을 기록했다.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환자 보고 2년 2개월여 만에 1만명을 넘었다. 그간 사망자 발생 추세를 보면 대유행을 겪을 때마다 사망 피해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국내 첫 보고 이후 56일 후인 2020년 3월16일(102명) 누적 사망자 100명을 넘었다. 249일 후인 같은 해 11월20일(501명) 500명, 3차 유행 여파에 48일 후인 지난해 1월7일(1007명) 1000명을 각각 넘어섰다. 이어 350일 후인 지난해 12월23일(5015명)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고령 확진자 증가 영향에 누적 5000명을 넘었다.

누적 5000명 돌파 이후 79일이 지난 이날 12일 1만명을 초과했다. 첫 5000명 발생까지 703일이 걸린 반면 5000명에서 1만명까지 비슷한 규모로 사망자가 늘어나는데 불과 79일이 걸린 셈이다.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지난 2년과 올해 70여일간 사망자 발생 현황을 비교해보면 올해 사망 피해가 얼마나 크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2020년 초부터 지난해 12월31일(올해 1월1일 0시)까지 5625명

(55.5%), 1월1일부터 지난 12일 0시까지 4519명(44.5%)이 코로나19로 숨졌다. 지난해 12월1일 국내 첫 오미크론 환자 발생 이후 우세종화된 올해 70여일간 사망 피해가 급증한 셈이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바이러스나 델타 변이보다 치명률이 낮더라도 거센 확산세로 중증·사망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향후 1~2주간 유행 정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망 피해는 3~4주 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로 인한 초과사망 규모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초과사망은 코로나19 유행 전과 비교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나 감염에 따른 기저질환 약화로 숨졌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미국 워싱턴대 코로나19 초과사망률팀이 랜싯(Lancet)에 게재한 연구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2년간 국내 초과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4.4명이다. 러시아(179.3명), 브라질(186.9명), 미국(179.3명), 영국(126.8명)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

연구진이 조사한 기간은 국내에서 유행 초기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바이러스를 시작으로 알파·델타 변이가 유행하던 때다. 방역 당국의 검사·추적·치료로 이어지는 '3T' 전략이 낮은 초과사망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올해부터다. 지난 2년간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 수에 맞먹는 피해가 올해 70여일 사이에 발생했는데 현 확산세를 볼 때 앞으로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초과사망도 늘어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서선욱기자

## 한밤중 장흥 주택서 화재 6000만 원대 재산 피해

밤중 장흥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6000만 원대 재산 피해가 났다.

13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남 오후 9시 45분께 장흥군 장평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1시간 16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주택 66.15㎡와 가재 도구 등이 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653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주민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진화에는 소방관 57명, 장비 14대 등이 투입됐다.

소방 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불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장흥=김도영기자